

당국에의要望事項

—도시개업수의 입장에서—

서울김수의과병원장

金 孝 中

「獸醫界」編輯者로부터 都市 및 地方公開業 獸醫의 官에 대한 要望事項을 投稿받아 同誌에 掲載할터이니 都市 開業獸醫에 關係되는 部分을 筆者에게 써달라는 要請을 받았다. 「獸醫界」1962, 9月號에 臨床獸醫의 隘路 1962, 12月號에 臨床獸醫의 團結이란 題目으로 이어 拙稿가 發表된바 있으므로 讀者諸位께서는 우리들 都市獸醫의 苦衷을 理解하실줄안다 臨床界에 흔히 들리는 말은 요지를 都市보다 地方臨床獸醫가 훨씬 재미를 본다고 한다. 이러한 事實은 政府의 重農政策에 따라 그만큼 農村의 經濟事情이 向上되었다 할것인지? 또한 그만큼 獸醫師의 經濟的 地位가 向上되었다고 觀測할수도 있다. 그러나 都市開業獸醫의 立場에서 볼때는 地方獸醫師는 모르되 數年前의 好景氣에 比 하면 別로 向上된 點이 없을뿐만 아니라 都市의 同業者들 은 異口同聲으로 悲鳴을 울리고 있는 實情에 있다.

이러한 都市開業獸醫의 悲鳴이 官家에 들릴런지는 알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悲鳴이 歡聲으로 변하는 날까지 는 牛耳讀經이 되었던 馬耳東風이 되었던 木鐸을 쳐놓고 보아야 할 우리들의 深刻한 心惝만이 안타깝다 고나할 까.

稅金과 補助金

開業獸醫에 對한 1962年度의 官에 依한 最大의 贖物 은 免許稅全減 措置였다. 免許稅全減措置判定이 내린 그때만큼 우리들의 官에 대한 信賴가 컸던 일은 近來에 드물었다.

昨年 8月 全國臨床獸醫講習會에 를 前後하여 그렇게 까지 論難이 거듭되었던 免許稅가 農林部當局의 適切 한 措置로 인하여 우리들의 要望을 達成해 주었다. 그 러나 우리들을 또한 놀라게 한 事實이 이었다. 19 63年 新春의 贖物인 양 우리들앞에 날아들어온 것은 1963年度 免許稅納付告知書였다. 1月末日까지 今年 1 年分의 免許稅 3,600원을 該當區廳에 納付하라는 것 이다. 告知書를 傳達하려는 稅吏에게 免許稅全減判定 書를 보이면서 호통쳐서 告知書를 돌려보내는 한편 行政事務에 連絡不充分的 것을 不快하게 생각하고 있

는 次 그 告知書는 또다시 내 앞으로 날아왔다. 理由 는 1963년부터 稅法이 改正되어 獸醫師도 免許稅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 이순간까지 그 稅法 이 어떻게 고쳐졌는지 알길이 없었다. 그러나 大韓獸醫師 會側에서는 今始初聞이라고 하고 서울시獸醫師會에서 는 稅法이 改正된 것 같으나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른다고 하며 農林部關係官은 모르는 사이에 內務部側에서 合意없이 改正한 것이며 改正되었으면 할수 없다는 答辯이다. 當初 우리들이 要望한 것은 免許稅를 賦課 지 않도록 建議한 것이며 글겨서 부스름格으로 稅法 改正을 建議한 結果밖에 안된다. 그렇다면 農林部當局 의 適切한 措置는 目前을 모호하기 위한 臨時方便이 있든가? 國民으로 納稅義務를 回避하려는 것은 아니 다. 1時金 3,600원이란 우리들로서는 決코 적은 돈은 아니다. 免許稅外에도 所得稅와 同附加稅가 있다. 各 種세금을 합하면 年 10,000원 以上을 내야 한다. 官의 惠澤을 받는 公獸醫라면 모르되 年間 10,000원의 政府補助를 받아도 어려운 處에 놓여 있는 都市開業獸 醫實情을 官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모르면 알 도록 할것이며 알았으면 直刻의인 措置가 있어야 할 것이다. 勿論 우리들은 免稅措置나 政府補助金의 受 惠를 바라는 것보다. 더욱 切實한 要望은 政府補助金 을 받지 않고 많은 稅金を 내기도 獸醫師의 體面을 지 킬수 있는 行政의 뒷바침을 期待하고 싶다.

公獸醫優待觀念의 排除

地方臨床獸醫의 殆半은 官으로부터 任命받은 公獸 醫로 알고 있으나 都市事情은 全然 다르다 서울시의 경 우 70個開業獸醫中 9個區 公獸醫를 除外한 約85%가 一般開業獸醫이다. 家畜診療業으로서 同業者의 死活 問題를 論議할때 公獸醫와 一般開業獸醫가 全然 別個 問題로 取扱되어서는 아니될 줄안다. 公獸醫란 制度上 으로 볼때 診療所를 開設한 開業獸醫인 同時에 業務 上 地方長官의 指導監督을 받는 公獸醫인 것이다. 公 獸醫는 官으로부터의 受任事項인 家畜防疫業務에 從 事하고 官으로부터 宜當의 手當을 支給받고 있으며 自己管掌인 診療業務를 專擔하면서 畜主로부터 報酬

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公獸醫와 一般開業獸醫와의 差異點이 있다면 一般開業獸醫는 官의 任命과 手當을 받지 아니하고 防疫事業에 從事하는 自發的인 役軍이라고 할 수 있겠다. 公獸醫가 診療所開設의 節次를 버서나서 畜主個人에게 無報酬로 奉仕한다거나 官事業에 專任하지 않는 限 都市에 있어서의 現行公獸醫制度는 都市의 特殊性에 비추어 特定人에 대한 官의 特惠事業에 지나지 않는 感이 不無할뿐 아니라 公獸醫優位の 特權意識으로 하여금 營業上 同業者間的 善意的 自由競爭을 阻害하는 結果를 招來할 憂慮도 있지 않을가 생각한다. 나아가서는 公獸醫優待의 觀念이 派生하여 第三者의 立場에서 볼때 公獸醫優待即 一般開業獸醫 差別視의 結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일은 官의 獨善을 助長하여 公獸醫의 勤務上 違背를 默認하므로써 일어나는 事態로 말미암아 關係人으로서 하여금 官에 대한 不信을 招來하는 實例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想起한다. 援助物資에 依한 公獸醫에 대한 藥品配給의 時代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한다.

서울에 있어서의 患畜主는 公獸醫나 一般開業獸醫를 區別하지 않고 찾아온다. 찾아온 畜主에게 우리는 公獸醫가 아니라는 理由로 손님을 쫓아보낼수는 없다. 이는 畜主가 一般開業獸醫에게 家畜의 豫防注射實施를 依賴하여 왔을경우 우리는 豫防藥配定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理由로 拒絕하기 힘들다. 그것은 단골 손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職業的 意識이 作用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들 一般開業獸醫 가운데 公獸醫廢止論을 主唱하는 사람도 있고 或은 公獸醫輪番制를 主唱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筆者는 制度上 問題보다 運營上의 問題 即 官에 依한 公獸醫優待觀念을 排除하므로써 우리가 要望하는 機會均等に 依한 全體開業獸醫의 地位 및 福祉向上을 圖謀할 수 있다고 본다. 公獸醫優待觀念으로 일어나는 實質的인 特惠를 指摘한다면 個人營業인 家畜診療所에서 一般開業獸醫보다 有利한 條件下에서 一般畜主로부터 酬價를 받는 한편 官으로부터 每月 幾千원의 手當을 받고, 豫防注射等 防疫에 動員될때는 別途의 手當을 받고 있지는 點이다. 196年度 政府畜產部門豫算을 살펴보면 家畜防疫 및 衛生費로서 豫防注射實施 家畜診療 公獸醫 其他에 投入되는 額數가 近 4,006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開業獸醫란 이름의 “핸드캡”을 度外視하고라도 서울시 60名 開業獸醫에 대하여 從來와 같은 私生兒取扱을 맡아주기 바란다.

前記한바 免許稅 문제에 대하여서도 公獸醫에 限해서 特典을 베푸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防疫事業의 完全民營化

家畜傳染病豫防藥製造의 民營化는 近年에 큰 進展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製造部門全般에 대한 民間試驗所生産問題와는 別途로 防疫部門 即 豫防注射實施에 있어서의 完全民營化를 期待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換言하면 모든 家畜傳染病豫防注射는 有料實施하도록 制度化하는데 있다. 豫防藥製造가 民營化됨에 따라 開業獸醫는 藥品를 購入貯藏하였다가 畜主가 要求할때 接種하고 이에 대한 酬價를 徵收하므로써 關聯되는 畜主를 包含한 三者의 利益은 그대로 畜產業發展에 貢獻할수있는 捷徑일 것이며 또한 나아가서는 國家財政을 節約하고 政府防疫事業에 完璧을 期할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 問題가 解決되는 날에는 前述한 公獸醫에 대한 問題도 自然解消될 것이며 實効性있는 防疫成果를 얻을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問題되는 點은 一般畜主가 有料接種에 대한 理解와 生産費加算에 대한 處理方法일 것이나 前者에 대하여서는 8.15解放以後 近 20年間的 民度와 文化水準의 向上이 뒷받침 할수있을 것이며 完全軌道에 오르기까지는 政府의 適切한 啓蒙事業이 隨伴되어야 할 것이며 後者に 대하여서 過渡期的으로 藥品生産과 接種實施面에 있어서 當分間政府補助政策으로 “카마”하면 될 줄안다.

특히 서울과같은 都市의 現狀으로볼때는 有料接種에 대한 市民의 認識程度는 “디스토피카”나 狂犬病豫防接種에 있어서 顯著하게 防疫完全民營化로 轉換할 時期에 到達한 感이 있으며 全國的인 實施에 앞서 官에서는 完全民營化에 대한 法制化와 아울러 서울시를 “모텔 케-스”로 今春狂犬病豫防注射를 實施했으면 한다. 美國에서는 狂犬病豫防注射料 3弗 “리스토폴”豫防注射料 15弗을 徵收한다는 外遊人의 말을들으니 都市開業獸醫가 살수있는 唯一한 길은 防疫事業의 完全民營化에 있지 않을까한다.

獸醫師會의 育成

獸醫師會를 育成하므로써 會員의 親睦과 福祉를 圖謀할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 事實일 것이다. 그러나 獸醫師會의 育成問題에 있어서는 두가지 見解가 있다.

한가지는 會員스스로의 힘으로 育成시키는 方法과 또한가지는 官의 도움으로 育成시키는 方法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前者에 대하여서는 會幹部나 會員이 생

각할 問題이므로 論外로하고 後者의 官의 도움으로 育成시키는 方法에 대하여 論한다면 行政의인면과 財政的인 面이 있다고 본다. 財政的인 面은 現在 “獸醫界”誌 發刊에대한 政府補助金으로 한가지 重要한 事業을 하고 있으므로 政府는 앞으로 더욱 必要한 事業을 위하여 官의 積極的인 補助事業을 期待하는 바이나 本稿에서 官에 要望하고 싶은 것은 行政的인 育成이라고 본다. 獸醫師會에대한 行政的인 育成策이라고 하면 極히 莫然한 것같으나 法에 依한 強權行使를 期待하는 것이 아니고 率直히 말해서 官에서는 獸醫師會(主로 市道獸醫師會)에 實情과 現況을 正確히 把握할 것이며 蒐集된 資料에 依하여 獸醫師會의 發展狀況을 檢討하므로써 各獸醫師會가 어느정도 均衡을 維持할수 있는 方案을 樹立하여 뒤떠러진會에 對하여 行政的인 育成策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어느 道獸醫師會는 會員의 團結이 잘되고 財産도 많고 事業도 잘된다고 한다. 些少한 問題같으나 大韓 獸醫師會에서 發刊되는 “獸醫界”誌가 會員에게 配附되지 않고 獸醫師會 倉庫에서 몇달씩 썩고 있다는 말을 몇年前에는 들은 일이있으나 最近에는 그런 事例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 勿論 우리 서울市 獸醫師會는 그런일이 없었다고 믿고 싶으나 이런일들을 官에서는 알아야하며 極히 初步的이지만 이런點부터 育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機能을 發揮못하는 獸醫師會가 있다면 正常的으로 運營할수 있도록 官의 指導育成이 必要하지 않을까 한다.

새로운 技術의 補充

日進 月步하는 科學의 發展은 獸醫臨床 分野에 있어서 例外일수없다. 우리들 開業獸醫는 새로운 技術의 補充을 위하여 機會있을 때마다 工夫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 그러나 우리들은 돈벌이에 역매어 새로운 臨床技術을 習得하는데 뒤떨어지기 쉽다. 어려운 일이다. 官에서는 診療事業의 發展을 위하여 우리들 臨床獸醫에게 새로운 臨床技術의 補充教育을 위하여 보다 많은 豫算과 機會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그렇게 하므로써 官의 事業目標을 達成하는데 큰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病類表의 制定

우리들 開業獸醫에게 官에서 要求하는 統計資料에 診療報告書가 있는데 이 報告書에 나타난 疾患種類를 區分하는데 있어서 한두가지 모순된 點을 發見할수있

는데 報告書에 依한 統計가 政策樹立에 큰 役割을 할 것으로 알고있으나 臨床에도 必要하거나와 行政上에도 必要한 家畜病類表의 制定이 時急하다고 본다.

施設費의 融資

家畜診療所에대한 施設費融資에대한 政府의 計劃이 있다는 消息이 들린다.

限定된 豫算으로 均等하게 企業者에게 融資하기에는 難點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런 機會에 都市開業獸醫에게도 惠澤을 주었으면 좋겠고 特히 施設費融資에 있어서도 公獸醫優先이란 惡幣를 一掃해 주기 바란다.

開業獸醫의 意見도

官에대한 要望事項으로 上述한 몇가지 點을 開陳하였으나 筆者 以外의 開業獸醫도 官에대하여 하고싶은 말이 많을 것임으로 官에서는 우리들 開業獸醫의 意見도 들어줄수있는 雅量과 機會를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官이나 獸醫師會가 主催가되어 少數人이 湧어 座談이나 懇談形式으로 意見を 聽取하여 行政面에 反響시켜주었으면 좋겠다. 또 湧이지 않고서라도 우리들의 意見이 上達될수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우리들을 찾아주거나 우편을 利用하여 意見의 綜合을 期할수 있는 方法도 있지 않을까한다.

結論의으로 都市開業獸醫의 官에 대한 要望事項을 要約해보면

1. 우리들의 큰 負擔이던 免許稅를 公開業獸醫의 區別없이 全減措置해 주고 補助金의 支給도 計劃해줄 것을 바라며 이런 要望을 하지않아도 維持할수 있는 行政의 뒷받침을 바란다.
2. 公獸醫 優待의 偏重觀念을 排除하고 機會均等의 施策을 要望한다.
3. 防疫藥品의 製造로부터 有料接種에 이르기까지 家畜防疫事業의 完全民營化를 早速한 時日內에 施行해줄 것을 바란다.
4. 獸醫師會의 育成을 위하여 細部에 이르기까지 關心을 갖고 正常的으로 運營할수 있도록 指導를 바란다.
5. 새로운 臨床技術의 補充教育을 위한 보다 많은 豫算과 機會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6. 統一된 家畜病類表의 制定을 要望한다.
7. 都市開業獸醫에게도 診療所 施設費 融資를 바란다.
8. 都市開業獸醫의 意見도 듣고 行政面에 反響시켜 주기 바란다. 1963. 2. 15